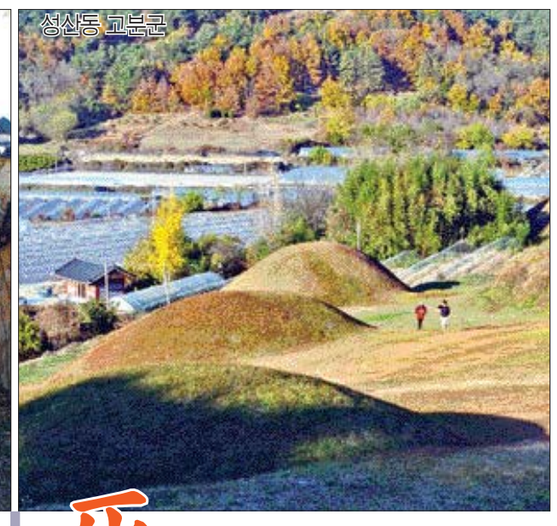
■경북 성주로 떠나는 사색여행

바람이 차가워졌다. 겨울이 온 모양이다. 가을이 지나면 응당 겨울이 올 테지만, 막상 닥친 겨울은 갑작스럽기만 하다. 사는 것도 매한가지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지만 '장차의 일'은 항상 '뜻밖'의 것으로 다가온다. '나고(生), 살고(活), 죽는(死)' 답 없는 문제의 답을 찾아 경북 성주를 다녀왔다. 사람 사는 고을 어디인들 태어나 살다 죽어간 사람들의 흔적이 없겠는가 마는, 경북 성주군처럼 생·활·사의 유적이 한곳에 집중된 곳은 드물었다.

일생의 흔적들 이와 갈구나~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토담길


성산동 고분군

生 세종대왕자태실과 선석사

세종대왕은 왕비와 후궁에게서 모두 18명의 왕자를 얻었다.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랐던 세종은 전국 제일의 길지를 찾아 왕자들의 태를 한 곳에 묻었다.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태봉 정상이 바로 그 곳. 세종은 적서 17 왕자와 원손인 단종의 태를 이곳에 안장했다.

각각 화강암으로 만든 19기의 태실은 땅을 파 석실을 만들고 그 속에 분청사기로 만든 태호를 넣었다. 지상에는 기단석을 놓은 뒤 연꽃 무늬가 새겨진 중동석과 개첨석을 얹어 부도탑 모양으로 만들었다. 탑신이 낮고 넓어 균형 잡힌 조형미가 돋보인다.

왕자 18명 우애 깊도록 태 묻었지만
탄생의 숭고함은 권력투쟁에 물들어

태실이 자리 잡은 태봉은 작고 아담한 언덕이지만 명당 중 명당이다. 하지만 세종의 바람이나 풍수적 염원과 달리 왕자들의 우애는 지속되지 못했다. 둘째 아들(세조)이 선대왕이던 형님(문종)의 아들(단종)이자 조카를 축출하고 왕위를 찬탈했다. 이른바 골육상쟁의 계유정란이 벌어졌던 것.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흔적은 태실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째 되던 해(1457) 세조의 심복들이 동복 동생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배다른 한남군, 영풍군, 화의군의 태와 장태비 등을 산 아래로 파 던졌다. 1997년 성주군이 흩어진 기단석을 찾아 복원했다고 하지만 지상부의 개첨석 등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민심은 세조에게 있지 않았던 듯하다. 예조판서 홍윤성은 세조의 태가 이곳에 묻혀 있음을 알리고 비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비석을 돌로 찍고 갈아서 비석의 글자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活 한개마을

한개 마을은 조선 세종 때 진주목사를 지낸 이우가 처음 정착한 이래 성산 이씨의 집성촌이 됐다. 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인데 낙동강의 지류인 백천이 마을 앞으로 흐르고 영취산이 등을 받치고 섰다. '한개'는 '큰 개울'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한개 마을은 조선 초부터 현재까지 560년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조선시대 양식을 대부분 보존한 한옥에는 대부분 사람이 아직 살고 있다. 이들은 아궁이에 장작을 떼 난방을 하고 밥도 한다. 한개마을에는 이런 고택이 9채나 있는데 그중 진사댁, 북비고택, 교리댁은 꼭 둘러볼 만하다.

'Y'자 형태의 마을길을 따라 왼쪽으로 접어들면 제일 먼저

3천m 넘게 구불구불 펼쳐진 토담길
고풍스런 마을엔 한적한 삶 엿보이고

다정한 초가집이 맞이한다. 300년 전 성산 이씨 정언공파 27세손 주진이 지은 집인데 비록 초가이지만 사랑채, 안채, 문간채를 갖춰 사대부가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다. 활짝 핀 국화를 소담스럽게 안고 있는 정원이며 무, 배추가 자라는 텃밭이 평화롭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민박(예약 054-930-6063)이 가능한 집이다.

마을 중간 쯤 위치한 교리댁은 영조 36년(1760)에 지어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이다. 집보다는 마당에 있는 150년 된 '탱자나무 같은 귤나무'가 더 유명하다. 제주에서 귤나무 3그루를 옮겨 심었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탱자처럼 변했다고 한다.

한개 마을의 또 다른 멋은 옛 담장이다. 마을 담장의 주류인 토석담은 흙과 자연석을 번갈아 얹어 쌓았다. 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펼쳐진 전체 토담 길이가 무려 3천m가 넘는다. 집과 집을 잇는 낙엽 쌓인 옛 토담길, 꼭 한 번 걸어 보시라. 고풍스런 마을 속에 저절로 동화될 수 있다

死 성산동 고분군

성산동 고분군해지기 직전 찾은 성산동 고분군에는 초겨울 햇볕이 따스하게 내려 앉아 있었다. 세종대왕자태실이 탄생의 숭고함이 권력투쟁으로 훼손된 장소였다면, 성산동 고분군은 죽어서 안온함을 찾은 장소였다.

세종대왕자태실과 한개 마을이 있는 월항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방향을 잡아 달리다보면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따라 볼록볼록 솟은 언덕이 줄지어 나타난다. 5분쯤 더 가다가 '수비실 마을' 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성산동 고분군을 만날 수 있다.

성산동 고분군은 동서로 낮게 펼쳐진 성산(해발 389m) 비탈을 따라 반달모양으로 분포해 있다. 현재까지 129기의 고분

산등성이 따라 볼록볼록 솟은 고분들
치열한 삶 뒤 이제야 안온함 찾았구나

이 확인됐는데 성주지역 고분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성주 벌판을 한 눈에 내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으로 봐서 이 지역이 삼국시대의 중심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고분들의 외형은 흙으로 원형의 봉분을 만든 토총이다. 무덤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건데, 성주읍 일대를 거점으로 삼았던 성산가야 수장층 고분으로 추정된다.

성산동 고분군의 매력은 누렇게 잘 익은 잔디를 따라 무덤들 사이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침 고분군 사이사이 오솔길에는 갈참나무 낙엽들이 적당이 쌓였다.

걷다보면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 정겹다. 사람이 없는 사이 양지바른 곳을 찾아 멧돼지가 쉬어간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성주군 문화관광과 054-930-6064. 〈부산일보 제공〉

/글=박진국기자 gook72@busanilbo.com·사진=이상일기자 si lee@

전라도 맛 기행

광주 불로동 '대광식당'-육전·굴전·해물전

한점마다 추억의 향기 가득

은행·조·흑미 담긴 뚝배기밥도 인기

떠들석한 잔칫집과 집안 제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침개다. TV사극에서 금의환향하는 아들을 위해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면 무쇠 솥뚜껑에 고기전과 생선전을 부쳐내는데 아낙들이 주인 몰래 먹다 호통을 듣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침개(전)는 잔칫날과 젯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메뉴다. 12월 망년회시즌이 되면서 메뉴선택이 쉽지 않다. 육전집은 색다른 맛을 원하는 이들에게 환영받을 만 하다.

광주시 동구 불노동 90-5번지 육전전문점 대광(大光)식당(사장 이향숙·49)은 지난 1983년 광주에서 최초로 문을 연 육전전문점으로 24년동안 광주의 맛집을 대표하고 있다.

최근 도청 이전으로 인해 광주 충장로 상권이 무너지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맛집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아예 문을 닫았지만 대광식당은 묵묵히 80년대 추억의 맛과 정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인지 광주를 찾는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당으로 소문이 났으며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등 예전의 맛을 그리워 하는 매니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육전집이 많이 들어섰지만 그대로 대광식당은 24년의 전통의 맛을 지켜가고 있다.

대광식당에서 맛 볼 수 있는 메뉴는 함평에서 가져온 특A급 한우로 부친 육전과 고흥등 전남 굴 산지에서 직송한 굴전, 장흥산 키조개와 무안 낙지로 부친 해물전이 식객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유기농 야채로 제공되는 상추, 배추, 쌈채에 싸서 구운 마늘과 고추를 넣어 먹으면 이만한 호사가 없다.

특히 손님 식탁에서 도우미가 직접 전을 부쳐주기 때문에 즉석에서 즐기는 음식 맛이 특별하다.

육전과 해물(낙지, 키조개, 굴)전 모두 약간 덜 익은 상태서 먹는 것이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다.

전을 먹은 후에는 메밀국수와 뚝배기 밥이 나오는데 뚝배기 밥은 은행과 조, 흑미가 들어 있어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육전 2만원, 해물전 1만8천원. 문의 223-3598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맛 : ★★★★
분위기 : ★★★★
가격만족 : ★★★½
〈★ 5개 만점〉

DAEWOO ELECTRONICS
난방비 절감율 83% 효율 대우 냉·난방기
구입비 부담없이 렌탈로 빌려쓰고 절감된 난방비로 무료사용 기대효과
연말기획 "찬스" 새것 받고 헌것 주기
중고 에어컨, 난방기, 냉·난방기 보상판매기획
-중고제품 정상가격 보상 받으시고 파격적 유지비 절약 신제품 사용의 연말 기획찬스
조목조목 따져보고 비교해 주십시오
하나. 중고에어컨,난방기,냉·난방기 보상판매 단행 — 사용하시던 에어컨이나 난방기, 냉·난방기 정상가 보상판매로 신제품 구입 및 교체효과 만족은 물론 난방비 절약 절호의 기회
둘. 렌탈로 구입비용없이 사용하고 38.5% 세금혜택까지 가져 가십시오 — 소유권이 전부 렌탈에 의한 구입비 부담없는 사용
셋. 장기할부로 부담 없이 구입비 최소 — 금융부담 없이 원금만 분할상환으로 구입하고 절감된 난방비용으로 대납하는 무료구입 기대효과
넷. 한전무상지원금 최고 152만원 혜택 — 원격제어 냉·난방기 구입시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에 동참하고 무상 지원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난방비 절감율을 비교해 주십시오 — 공인기관의 성능 시험성적서에 의한 객관적인 절감율을 꼼꼼히 비교 평가해 주십시오
여섯. 완벽한 A/S 조직망에 의한 전국 원콜써비스시스템 — 대우전자써비스의 전국 A/S네트웍에 의한 전문엔지니어의 제품 설치 및 고객만족 사후 써비스
경유대비 최대 83%절감
-18℃ 초저온에서도 더욱 강해진 Hi-Engine 초강력 파워의 저온형 대우일렉 냉·난방기
프리미엄
DC 인버터 벽걸이형 냉난방기
천정카세트형 난방·냉방 복합기
6, 8, 15, 18, 23, 33, 44, 63, 80, 110형 (업소용, 산업용, 소·중·대형)
·제 조 원: 대우일렉
·설치및A/S: YES Service 대우일렉서비스
구입 문의 대우일렉 호남 총판(금호월드 2층 하이네트)
080-350-8822 딜러모집 376-2900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건물
• 대지600PY 건물1,350PY 보증금36억 월세3,000만원 (지역최고상권)융자12억 매가85억 (토지와 교환가능)
• 대지200py,건물725py(신축)융자8억 보증금8억 월1,700만원에상 매가34억(동림2지구 주공입구)
• 대지1,623㎡(490평)건평4,100㎡ (1,250평)(신축)병원,학원적합 매가65억(상무지구)
• 보증금 20억 월세 3,600만원 융자 18억 매가65억(농성동)
• 보증금 5억 월세2,000만원 융자7억 매가27억(첨단지구)
◉토지
• (상무지구)2,800㎡(850평) 3.3㎡당 1,200만원
• (상무지구)727㎡(220평) 3.3㎡당 1,200만원(유흥가능)
• (상무지구)450㎡(136평) 3.3㎡당 850만원(유흥가능)
• (상무지구)330㎡(100평) 3.3㎡당 800만원(시청역입구)
• (상무지구)3,593㎡(1,087) 3.3㎡당 600만원
• (쌍촌동)800세대아파트입구877㎡ (266평)3.3㎡당350만원(수패적합)
• (광산구동산동)그린벨트73,000㎡ (2만2천평)농장 3.3㎡당11만원
• (쌍촌동)대지512㎡ (155평)20M 도로접 3.3㎡당 265만원
• (장등동)3,760㎡(1,140평)평당40만원
• (동림동월고올로입구)4,300㎡ (1,300평)3.3㎡당350만원
• (하남2지구)근린시설(병원,학원,목욕탕적합)1,652㎡(500평)㎡당700만원
• (금호지구)1,200㎡(360평)3.3㎡ 당350만원(병원·학원-식당적합)
• (수완지구)대지528㎡(160평)3.3㎡ 당470만(주공아파트정문 앞)
◉모텔,호텔매매
• (상무지구)객실35개 융자20억 매가28억
• (상무지구)객실60개 융자36억 임대보증금4억 월세3,000만원 객실 직영 매가 88억
★양도세문제 부동산 교환 상담환영★

부자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 표 : 김 갑 룡
☎ (代)655-8249, 핸 011-9618-9691
1. 광제빌딩상가 임대(신축)
1) 상무지구 최고의 상권 (치평동 1256-6)
2)상무역에서 5분거리(이바돔식당옆)
3)전업종 가능
4) 각층(1~5층) 528㎡(160평)
2. 원룸 매매 (쌍촌동)
1) 대지 : 181.8㎡(55평) 연건평 403.3㎡(122평)
2) 식당 1개 원룸2개, 투룸 4개, 쓰리룸1개, 안집1개
3) 매매가 : 4억 8천만원(융자 1억2천만원 포함) 보증금 6천6백만원 월세 284만원
3. 신축 원룸매매 (풍암동)
1) 대지 : 225,7㎡ 연건평 416㎡ (4층)
2) 원룸 10개 안집주택 128㎡ (39평)
3) 매매가 : 4억 9천만원(융자 9천만원 포함) 보증금 8천만원 월세 370만원
4. 매매 (상가건물 금호2동)
1) 대지면적:478.8㎡(144평) 연건평1,094㎡(331평)
2) 보증금 2억8천2백만원
3) 월세 710만원 융자금 3억
4) 매매가 상담후 결정
5. 급 매(땅)
1) 곡성군 삼지면 임야 관리지역
2) 면적:88,069㎡(26,640평)
3) 전원주택, 수련원 적합. 도로접함. 경사도평판함
4) 매매가 상담후 결정
6.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 권리 분석